

— 金麗壽 선생님을 세계무대로 떠나 보내며 —

이 명 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김여수 선생님은 내가 미국에서 유학을 끝내고 1973년 귀국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同業者의 유대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다. 철학의 동업자로서, 아니 더 구체적으로 분석철학의 동업자로서 김여수 선생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삶의 맥락 속에서 살아왔다. 1975년경부터 한국철학회의 분과활동의 하나로서 분석철학 모임이 종로서적의 회장님 방을 빌려 자주 모였는데, 그때 김여수 선생님은 박영식 선생님과 소홍렬 선생님, 그리고 본인과 함께 네 명의 운영위원으로 분석철학 모임을 꾸려왔다. 물론 이렇게 네 명의 운영위원 중심의 운영체제로부터 회장체제로 운영전환을 하였을 때, 김여수 선생님은 분석철학회 회장 일을 맡기도 하였다.

아마도 나의 지난 25년에 걸친 학문 활동 중 나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은 서울대에 철학사상연구소를 만들어 김여수 선생님과 더불어 우리 과 선생님들이 분주히 뛰어나다니던 때가 아니었던가 싶다.

“세월이 쏠살같이 흘러간다”는 말은 내가 어린 시절에 주워 들은 하나의 격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나의 삶의 감각을 어찌나 절실하게 표현해 주는 말인지! 이번에 정년 퇴임하시는 차인석 선생님과 김여수 선생님과 더불어 내가 서울대에 첫 부임하였을 때, 우리들 세 명의 신입교수는 그야말로 “젊은” 말단 교수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자연 연령이 제일 낮았기 때문에 세 막내들 가

운데 막내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막내들이 원로교수가 되어 학교를 떠나고 있으니, 시간은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빨리 사라져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다.

김여수 교수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훗날 후배들을 위해서 김여수 선생님의 특징 한 두 가지를 적어두고 싶다. 몸 자세는 매우 단정하시고 말하는 매우 분명하게 또박또박하게 서울의 표준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신다. 그의 옷차림은 “국제신사” 일급 수준이다. 그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로부터 “김여수 선생님은 외교관 같다”는 말을 내가 가끔 들었다. 어떤 철학과 출신 동창은 김여수 선생님을 조가경 선생님과 매우 흡사하다고 평하기도 한다. 조가경 선생님은 서울대에 계시다가 60년대 말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주립대 버펄로 캠퍼스에서 지금 71세의 노교수로 아직도 젊은 교수처럼 강의를 하시고 계신 분인데, 김여수 선생님의 몸가짐은 그분의 끈고 매우 단정한 몸 자세와 비슷하며 — 자그마한 체구도 비슷하다 — 더욱이나 탁월한 외국어 구사능력에 있어서 두 분은 매우 닮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분은 비단 외국어에만 능통한 분이 아닌 것 같다. 뛰어난 언어 능력과 함께 탁월한 철학적 사유능력을 지닌 분이다. 이러한 김여수 선생님의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전문 외교관에 못지 않은 세련된 몸매와 대인관계가 어찌면 김 선생님을 우리로부터 정년 이전에 떠나게 한 근본 사유인지도 모르겠다.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김 선생님은 지금 유네스코 사무국 철학국장으로서 유네스코 이념의 철학적 기반을 재정립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여기서 그의 뛰어난 외국어 능력과 균형감각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김여수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욱 한국철학계를 세계 무대와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을 우리 모두가 크게 기대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와 함께 철학과에 신입교수로 함께 들어왔던 우리 셋(차인석 교수, 김여수 교수) 가운데 두 분이 먼저 자리를 비우고 나니, 나는 마치 “홀로 버려진 존재” 같은 느낌마저 든다. 두 분

선생님들은 보다 넓은 세상에서 그 동안 온축해 놓은 경륜과 지혜로써 세상을 보다 밝은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일에 큰 공헌을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지난 30여년 동안 김 선생님께서 한국철학계에서, 그리고 우리 철학과에서 뿌려 놓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을 나는 또한 확신한다. 이러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나와 그리고 우리 철학과 동료 교수들은 김여수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나 세계 무대 위에서 맹활약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큰 갈채를 보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선생님의 萬壽無疆을 두 손 모아 빌어마지 않는다.